

진짜보다 더 진짜같은 교도소 열풍

익산시 세트장, 드라마·영화 촬영 러시 주말 2000명 발길... 대표 관광지 부상

KBS 최강배달꾼 교경표, KBS 이 름없는 여자 오지은, OCN 구해줘 우도환.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같은 교도소에서 출소한 것이다. 바로 익산교도소 세트장.

지난 28일에 이준기, 문채원, 손현 주 등 tvN '크리미널마인드' 제작진이 익산교도소세트장에서 촬영을 마쳐 또 한편의 드라마가 추가 될 예정이다.

최근 우리사회 뉴스에서까지 유난 히 교도소가 자주 등장하면서 드라마, 영화에서도 빈번히 교도소 촬영이 이뤄져 이같은 익산교도소 세트장 특수가 생겨난 것으로 보인다.

익산시교도소세트장에서는 2005년 이래 현재까지 250편 이상의 드라마, 영화에서도 빈번히 교도소 촬영이 이뤄져 이같은 익산교도소 세트장 특수가 생겨난 것으로 보인다.

익산시교도소세트장에서는 2005년 이래 현재까지 250편 이상의 드라마, 영화에서도 빈번히 교도소 촬영이 이뤄져 이같은 익산교도소 세트장 특수가 생겨난 것으로 보인다.

달 말 개봉하는 '로마의 휴일'을 비롯해 드라마 '도둑놈 도둑님' '캐리어를 끄는 여자', '국수의 신' 배우나 출연의 미드 'Sense 8' 까지 등장해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교도소 촬영장소로 자리 잡았다.

실제로 지난 8일 아시아태평양도 시관광진흥기구(TPO)에서 주관하는 한국문화언어체험프로그램(Korean Culture and Language Immersion Program, 이하 K-CLIP) 참가자로 익산교도소세트장을 방문한 한 미국 대학생 Jacob Oleszkowicz은 '미국드라마 Sense8'의 '배우나'의 감옥'이라고 한 눈에 알아보기도 했다.

이 같은 드라마, 영화 속 인기 덕분에 익산교도소세트장은 익산시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급부상 중이다. 관람객도 지난해 2만6049명에서 올해는 8월27일 현재 4만5688명으로 이미 전년 대비 75%로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8월28일, 27일 양일간 주말 방문객이 2,220명에 이른다. 이 같은 인기는 드라마



익산시가 성당면에 위치한 교도소세트장이 드라마·영화 촬영지로 각광을 받으면서 관광객들의 방문이 줄을 잇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사진은 교도소세트장에 방문한 관람객들이 각종 체험을 하는 모습이다.

따라하기, 독방, 감옥체험, 감옥 속의 인생 사진 찍기 등이 문화콘텐츠에 민감한 젊은 층 사이에 유행하며 관광명소로 자리 잡은 것으로 풀이된다.

정현을 시장은 "익산교도소세트장은 문화콘텐츠가 관광명소로 자리 잡은 대표적인 사례"라며 "익산시는 관광도시 원년을 맞아 2018년 전국체전 개최 및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선정 등을 기회로 삼아

관광 인프라 확충 등 수요자 맞춤형 관광 상품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원래 익산교도소세트장은 성당초등학교 남성분교가 폐교된 뒤 학교터에 2만2,132㎡의 터에 연면적 2,613㎡의 교도소 세트장이 세워졌다.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오전9시~오후6시) 무료개방되고 있으나 드라마와 영화 촬영일은 관람이 제한된다. /익산=장왕원 기자

“시민은 공무원의 고용주 인식 가져야”

정현을 익산시장, 친절행정 강조



다"고 말했다.

정현을 시장은 취임 직후부터 친절과 정열을 강조하고 소통하는 고객만족 행정 구현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직원 친절도 향상을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연 4회 전화 친절도 조사를 시행하는 한편 조사요원이 직접 부서를 찾아가 친절도를 체크하는 방문민원 친절도 조사도 병행하고 있다.

정 시장은 "시민들이 관공서에 바라는 친절 기대치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기에 공직조직도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시민 기대에 부응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직원들의 친절 마인드를 높이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왕원 기자

검찰 무혐의 발표 후 시장운영에 속도를 내고 있는 정현을 익산시장(사진)이 시민들에 대한 친절행정을 강조하며 공직분위기 쇄신에 나섰다.

최근 열린 시장운영 현안보고회에서 정 시장은 간부공무원들에게 공직자의 기본자질로 친절마인드 함양을 적극 주문했다. 정 시장은 "공무원은 시민을 고용주라 생각하고 '수퍼울'의 마인드로 민족을 넘어 감동 수준의 친절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민들이 관공서를 찾을 때는 마지막 동아줄을 잡는 절박한 심정으로 방문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 되는 방향으로 검토해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부득이 안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다른 대안을 제시하는 등 헛걸음 하는 일이 없도록 민원 해결에 최선을 다해야 한

한국폴리텍대학 익산캠퍼스

전국 캠퍼스 중 성과향상 최우수

한국폴리텍대학 익산캠퍼스가 2016년도 한국폴리텍대학 대학평가 결과 전국 35개 폴리텍대학 캠퍼스 중 성과향상 최우수 캠퍼스로 선정됐다.

한국폴리텍대학 익산캠퍼스는 다양한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기술인력 양상을 위해 2년제 학위과정과 1년제 전문기술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2년제 학위과정은 2015년 95.0%, 2016년 90.0%의 취업률을 기록했으며, 전문 기술과정의 취업률은 전년 대비 7.1%p나 크게 상승하는 등 기관장 경영사항 이행실적, 입학승병병제 정착 등을 종합한 평가에서 전년 대비 8.53점 오른

92.499점을 획득했다.

익산캠퍼스는 지난 5월에도 교직원 소통과 일·가정 양립, 활기찬 직장, 복지시설 조성 등 조직문화 개선 노력을 인정받아 조직문화 우수 캠퍼스로 선정된 바 있다.

성과향상 캠퍼스 표창을 받은 한국폴리텍대학 익산캠퍼스 조석남 학장은 "모든 교직원의 노력으로 교육 성과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평생직업능력개발 리더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대학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우수 캠퍼스로 선정된 소감을 밝혔다. /익산=장왕원 기자

군산해경, 합동 점검반 편성 꾸꾸미 낚시철 안전관리 집중

해경이 9월부터 10월까지 최대 이용객이 몰리는 꾸꾸미 낚시어선 안전관리에 돌입했다.

29일 군산해양경찰서는 "한해 10만 명의 꾸꾸미 낚시어선 이용객이 몰리는 9월~10월까지 경비함정과 연안구조 선박을 대거 투입하는 집중 안전관리 대책을 펼칠 계획이다"고 밝혔다.

매년 군산 앞바다에는 꾸꾸미 황금어선이 형성되는데 15년에 8만9,197명이 두 달간 낚시어선을 이용했고 지난해에는 10만4,049명이 이용했다.

하지만 군산항 남·북 방파제와 연도, 개야도 인근으로 주말이면 수백척의 낚시어선과 개인 레저보트가 몰리면서 사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 해경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해경은 군산시와 합동으로 꾸꾸미 낚시군을 태우고 영업에 나서는 낚시어선을 대상으로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안전점검에 나선 계획이다. /군산=장현 기자

군산~연운항 신규항로 컨테이너선 첫 입항

에비던스호 주 1회 입항 예정 물동량 전년비 70% 증가 기대

군산컨테이너터미널(주)에 소펙스트(주)(대표이사 김동출) 소속의 컨테이너선 에비던스호가 첫 입항했다.

에비던스호는 최근 중국 위해항을 출발하여 군산항 63번 선석에 접안, 냉동 고추 등 식자재와 화학제품 등 약 20TEU(1TEU=20피트 길이 컨테이너 1개)를 양하했다.(※양하: 선박으로부터 화물을 내리는 행위)

이번에 입항한 에비던스호는 20피트 컨테이너 1,050개를 선적할 수 있는 9,191톤의 컨테이너 전용선으로 군산과 중국 연운항, 위해항을 연결하는 항로에 투입되며 주 1회 매주 일요일 군산항에 입항 예정이다.

신규 개설된 군산~연운항, 위해항로의 주요 화물은 식자재, 철재, 석재, 화학제품, 자동차부품 등으로



군산컨테이너터미널(주)에 소펙스트(주) 소속의 컨테이너선 에비던스호가 첫 입항한 가운데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간 6천TEU 화물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에비던스호의 군산항 첫 입항을 축하하기 위해 군산컨테이너터미널을 찾은 군산시와 군산해수청 관계자는 에비던스호의 안전항해를 기원하며, 많은 물동량을 싣고 군산항에 기항하여 군산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소펙스트(주)의 군산항 취항으로 군산컨테이너터미널에 기항하는 선사는 총 5개사, 7개 항로가 운영되며, 물동량은 전년 대비 70% 이상 증가한 약 3만 TEU를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군산=장현 기자

군산 시간여행마을 위생업소 친절 'up'

바가지요금·음식 재사용 금지 등 수준향상 교육·간담회

군산시가 시의 대표관광지인 시간여행마을이 전국적인 관광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위생업소 수준향상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시에서는 최근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함에 따라 시간여행마을 주변 위생업소 영업자(종업원)에 대해 친절 교육 및 간담회를 29일 월명동 주민센터 회의실에서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진행된 교육 및 간담회는 해마다 증가하는 관광객 수용 대비 위생업소의 손님맞이에 대한 불만·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생업소 친절서비스 및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영업자(종사자)의 역할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아울러 다가오는 2017 시간여행축제에 대비해 관광객들에 대한 가격표 게시를 통한 바가지요금 근절, 남은 음식 재사용 금지 등 영업주들의 준수사항 이행 교육과 '식중독 예방 교육'도 병행해 실시했다. 오숙자 식품위생과장은 "수시로 위생업소에 대한 친절서비스 교육과 위생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군산=장현 기자

고맙습니다! 적십자회비 나눔이 희망입니다.

여러분이 참여해 주신 적십자회비는
경주지진, 태풍 차바, 화재 등 각종 재난을 당한
이재민과 소외된 이웃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적십자회비로 희망을 전하세요.

적십자회비, 지금 희망을 심어주세요.

- 금융기관
- 가상계좌
- 인터넷
- 전화 ARS 1577-8170
- 편의점
- 신용카드 포인트
- QR코드

홈페이지 www.redcross.or.kr
정기후원·긴급지원 문의 1577-8179

전라북도 대한적십자사 전라북도지사

응급 구호품 세트

홍보대사 안재욱